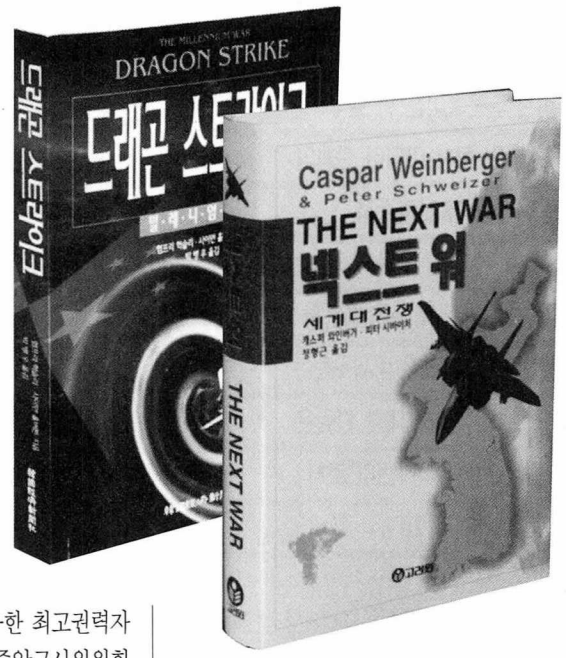
현실감 넘치는 세계전쟁의 시나리오

《넥스트 워》, 《드래곤 스트라이크》

멀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가상전쟁의 시나리오를 담은 두권의 책이 눈길을 끈다. 특히 두 책의 시나리오에 한반도 전쟁은 어김없는 현실이어서 우리에게 또다른 시사를 던진다.



세계전쟁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일어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 멀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는 가상전쟁의 시나리오를 담은 두 권의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전 미국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와 전쟁연구가인 피터 시바이처가 공동집필한 《넥스트 워》(고려원)와 영국의 언론인인 험프리 헉슬리와 사이먼 홀버튼이 함께 펴낸 《드래곤 스트라이크:밀레니엄 전쟁》(한국경제신문사)이 그것이다. 이 두 권의 책은 미래의 전쟁에 대한 가상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저자들이 자신의 경력·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집한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예리한 분석을 곁들인 것이어서 생동감과 현실감을 더한다.

미 국방성의 가상 전쟁 시나리오

《넥스트 워》(정형근 옮김)는 모두 다섯개의 발발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전쟁을 다룬다. 저자들이 꼽은 전쟁 발발 예상지역은 한반도·이란·멕시코·러시아·일본 등 다섯군데. 물론 이 전쟁을 막아내는 중심국가는 미국이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들이 모든 전쟁의 결론부분에서 '세계경찰'로서의 강력한 미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군비감축과 국방예산 축소는 미래의 세계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혹은 미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저자의 한 사람인 와인버거가 81년부터 7년간 미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던 당사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책이 담고 있는 이러한 '극우적' 미국중심주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책은 미국 방부의 방대한 데이타와 미국방성 컴퓨터에 프로그램된 시나리오에 입각한 전쟁게임을 엿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크다. 특히 가장 가까운 시일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는 대목은 특별한 주목을 끈다. 한반도 전쟁의 발발일은 1998년 4월 6일. 주석의 자리를 승계한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일과 중국의 실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후시의 공모로 북한과 중국은 남한과 대만을 동시에 침략한다. 중국의 전쟁목적은 부족한 천연자원을 국토를 넓히는 것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생화학무기로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 124연대를 공격한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대구까지 내려오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미국의 핵 보복에 의해 한반도는 피폐화된다. 한반도 전쟁은 중국의 휴전제의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걸프전 이후 절반으로 축소된 군사력으로 완승을 거두기 힘들었던 미국이 휴전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종결된다. 전쟁발발로부터 휴전협상까지 걸린 기간은 두달 남짓. 이 책은 그 기간 동안 전개된 전쟁상황을 생방송한다.

연합군측과 북한군및 중국군의 전략과 전술, 사용무기, 사상자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 등이 마치 컴퓨터 화면에서 전개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는 듯 생생하다. 서울의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체제 집회 광경에 대한 묘사나 김정일 등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에 대한 섬세한 묘사도 현실감을 더해준다. 한국내 반체제 세력이 1만명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강경파 혁명투사라는 내용은 물론 현재 미국의 판단과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드래곤 스트라이크》(박영우 옮김)는 얼마전 이행된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서방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바탕에 깔고 있는 책이다. 홍콩을 넘겨받은 중국이 아예 대만까지 통일하고 난사군도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의 영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아시아의 패자, 세계의 강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세계전쟁의 시나리오다. 저자들은 이 가설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징후들을 제시한다.

가령, 1996년 봄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거나, 중국관료 및 학자들의 미국에 대한 경계 발언, 미국과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예상한 각종 자료 및 저서들이 그것이다. 정치·외교·군사전문가들의 조언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 책은 중국의 위협을 전제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각국의 정세, 치열한 외교전의 내막,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가공할 첨단무기들이 대응하는 전장의 참화, 외환·석유시장에서의 거대한 음모 등이 치밀하고도 속도감 넘치는 문체로 그려져 시종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한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일으킨 세계 대전쟁

《드래곤 스트라이크》의 시나리오는 2001년 2월 18일 새벽, 중국군이 베트남 해군기지를 폭격하고 남중국해 군도들을 강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항을 시도하던 주변국들은 일거에 패퇴하고, 인질로 잡힌 서방의 노동자들을 구출하려던 미국의 군함이 격침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향하고, 중국의 핵잠수함은 워싱턴을 강타할 수 있는 곳까지 잠입한다. 일본과 미국이 '자유세계의 수호군'으로 중국의 침략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개요다.

다음 세기의 전쟁발발 예상지역으로 가장 으뜸인 한반도 문제는 이 책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중국의 승승장구에 상황을 오판한 북한이 남한에서 국지적인 테러를 감행하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남한은 북한에 대대적인 보복을 감행한다.

흥미로운 것은 《넥스트 워》에서 북한과 연대했던 중국이 이 책에서는 남한측을 지원한다는 것. 《넥스트 워》에서 자신의 심복부하에 의해 총살되었던 김정일은 이 책에서는 중국 특수부대에 의해 납치, 연길에 감금되는 운명으로 그려진다. 《넥스트 워》에서 중국과 미국측의 공조에 의한 종전협상으로 귀결된 한반도 전쟁은 《드래곤 스트라이크》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한시적인 식민지 형태로 통치하는 것으로 결말짓는 것이 다르다.

BBC특파원, 《파이낸셜 타임즈》의 홍콩지국장 등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두루 취재한 저자들의 경험 덕분에,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이태원의 거리 표정이나, 지하철 종각역, 피카디리 극장을 만날 수 있다. 현실감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전쟁은 그것을 예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전쟁을 예측하는 이 두 책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김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다음 세기 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 한반도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점, 북한의 남한 침투의 양상이 특수부대원에 의한 후방 침투와 테러라는 점 등은 두 책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들의 예측대로라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남북한의 주체적인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 박남정 기자

고려원/A5신/532면/12,000원
한국경제신문사/A5신/540면/8500원